



남원 학교밖 청소년 독후감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활동 중인 안체희 청소년이 2023년 남원시공공도서관 독후감 공모전에 참여해 청소년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독후감 공모전은 남원시공공도서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정해진 도서를 읽고 제출된 독후감 중 우수한 내용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체희 청소년은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독후감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남원시에 감사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번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밀신 센터장은 “앞으로도 2023년 남원시공공도서관 독후감 공모전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일은 뛰어난 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피해지원에 조금이나마 힘 보태”

BMW 내쇼날모터스, ‘집중호우 피해 가구 지원 성금’ 1000만원 기부

BMW(주)내쇼날모터스(김성률 대표)는 2일 전주시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가구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임직원 일동의 마음을 모아 마련된 이번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전주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구의 협장복구 등 주거개선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성률 대표는 이날 전달식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임직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일상복구 등 피해지원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BMW 내쇼날모터스가 2일 전주시에 수해피해 가구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방세림 매니저, 김태현 매니저, 김종택 복지국장, 이서준 매니저, 이지혜 매니저)

연속 매월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총 기부액 4300만 원), 이 밖에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전주시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아낌없는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전주시에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는 BMW(주)내쇼날모터스 임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꾸준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BMW(주)내쇼

날모터스는 전주시 저소득 아동 도서지원 ‘지혜의 반찬’ 사업을

위해 2016년부터 7년

연속 매월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총 기부액 4300만 원), 이 밖에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전주시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아낌없는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 의사회, 수해의연금 2000만원 기탁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는 2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수해의연금 2,000만원을 전라북도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 유병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극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여러분 시기에 공심을 갖고 수해피해 극복에 동참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전북도에서도 피해복구와 수해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김종구 회장과 전라북도의사회원들이 뜻을 모아 추진해 됐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태권도 최고 스타 이대훈, 태권도진흥재단 홍보대사에 위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3회 우승, 아시안게임 3연패 등 한국 태권도 최고 스타 중 한 명인 이대훈 국가대표 코치를 홍보대사에 위촉했다.

2일 태권도원 명인관 내 일여현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 이대훈 코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협약서 서명과 위촉장 전달, 기념 송정 작성 세리머니 등을 진행했다.

이대훈 코치는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선수 은퇴 후 지난 3월 대전시청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 최근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약했다. 특히, 6월 아제르바이잔 비邹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4년 임기의 세계태권도연맹(WT) 선수위원회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대훈 홍보대사는 “은퇴 후에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WT 선수위원회, TV 프로그램 출연 그리고 오늘 태권도진흥재단 홍보대사에 이르기까지 태권도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태권도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늘 위촉식을 계기로 우리 재단과 더욱 활발한 협력을 통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선수 시절에도 자주 찾았던 태권도원을 이제 지도자이자 홍보대사로서 더 자주 방문해 국내외 태권도인들과 일본인들에게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등 영원한 태권도 스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대훈 코치는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1년간 태권도진흥재단 홍보대사를 맡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문화예술공장,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은 2월 무주읍에 소재한 문화예술공장(구 아트컴퍼니) 강유빈 대표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공장 강유빈 대표는 ‘무주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어른이자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무주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고 싶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문화예술공장은 무주군 관내 종합복지관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DIY 수업, 토탈 공예 등을 만드는 공방 체험을 하는 곳이다.

한편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2009년에 설립된 이래 총 11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인재육성사업과 운영비를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창군-고창교육지원청, 싱가포르 난양대와 역사문화체험연수 성료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은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싱가포르 난양대학교 경영대학교 팀방 일정의 글로벌 역사문화체험연수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2일 고창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학생들의 미래 진로 개발을 돋우기 위해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방문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와 확장을 위해 멘토와 상호 질문을 나눌 수 있었다. 멘토들은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로 선택의 중요성과 다양한 진로 개발 전략에 대해 알려주며, 학생들이 실제 업무와 교육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의 미래 진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멘토와의 상호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었다.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 교육장은 “난양대학교 경영대학교와의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교育 수준을 가늠하고 자신의 진로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창군과 고창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힘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경찰, 하계방학 맞아 유원지 순찰 활동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1일 천천면 유통휴게점에서 순찰 활동 및 위기청소년 등 선도·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장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주간 하계방학 위기청소년 등 선도·보호 강화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날은 유통휴게점을 방문해 공공질서 및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벌였다.

또한 유통휴게점 방문객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및 학교폭력 신고는 117’ 문구가 쓰여진 쿨토시 등을 배부하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미야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선도 활동을 함께 추진하였다.

정덕교 서장은 “남은 하계방학동안 지속적으로 피서지 주변 및 번화가에 대한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우리사회에 미래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덕교 기자

## 무주군, 도시재생주민협 트리월드팀 활동 수익금 장학금 기탁

무주군 무주읍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리월드 팀이 지난 1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5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팀원들이 직접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장바구니를 7월 20일 열렸던 무주읍 도시재생 어울림 공모사업 공유회에서 판매(반값불사장)한 수익금으로, 일려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트리월드 송남희 대표는 “도시재생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 이웃들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진 것을 느낀다”라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공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트리월드는 올해 3월 무주읍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팀 중 하나로, 친환경 나무 업사이클링을 통해 버려지는 가구나 소품을 새롭게 제작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한편, 무주군은 하반기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제생과 마을가꾸기, 마을기록을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인사

### 전주비전대

▲기획처장 박용균(전주비전대 교수노조 위원장, 교수협의회 부회장, 방송영상디자인과) ■▲교과협 신용협대학사업단장 김영주(지적토목학과)